



정의의 종

Vol. 17 2010. 03.

발행인: 김건식 | 편집인: 정상조

151-743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Tel : 02-880-6866 | Fax : 02-889-7196

<http://law.snu.ac.kr>

2010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지난 2월 26일 오후 5시 서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01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이 열렸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김정국 총동창회장, 손지열 전 대법관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150명의 학생들이 예비법률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 2page

서울법대 역사관 개관



서울법대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서울법대 역사관'이 오는 5월 개관 예정되어 있다. 서울법대 역사관은 최종교 교수가 1993년 17동 4층에 설치한 귀중문서실의 자료를 토대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지은 서암 법학관으로 귀중문서실의 자료를 전부 이전하면서, 구 국산도서관 1층 위치에 '서울법대 역사관'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서울법대 역사관은 ▲ 법대 변천사 ▲ 법대 학장단, 명예/퇴임교수 명단 ▲ 법대건축물 변천사 ▲ (가칭)법대 학생문화 ▲ 법대의 학생운동 ▲ 법대 동창회장 ▲ 자랑스런 법대인 ▲ (가칭) 추억을 찾아서 등으로 구성 될 예정이다.

이번 역사관 개관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살아있는 학교역사 교육의 장과 대외적으로는 학교 홍보 및 한국 법학 미래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학연구동 발전기금 출연자 명판 업데이트

법과대학 17동 로비의 발전기금 출연자 명판이 업데이트 되었다. 지난 9월, 1980년대부터 2009년 9월 15일까지의 법과대학 발전기금 기부내역을 토대로 약 230명의 명단을 동판에 새겨 최초 제작한 이래, 9월 15일 이후부터 올 1월까지의 기부내역을 추가 합산하여 천만원 이상을 출연한 개인 및 단체의 이름이 업데이트 된 것이다.

현재 총 259명(단체 포함)의 기부자 명단이 仁·義·禮·智·信의 카테고리 내에 게시되어 있다.

Contents

- 2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 3-4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기념강연
- 5-7 주요행사
- 8 교수 동정
- 9 교수 신간소개
- 10 전문가과정, 공개강좌
- 11 최고지도자과정
- 12 발전기금, 법과대학 및 센터별 일정

입학식

2010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손지열 변호사 (전 대법관) 기념강연



입학식 2부 행사



2010 신입생 새로 배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두번째 신입생을 맞았다. 지난 2월 26일 오후 5시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입학식에서는 김정국 총동창회장, 손지열 전 대법관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150명의 학생들이 예비법률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김건식 원장은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법률가로 거듭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 무엇보다도 학업에 정진해 달라. 여러분들의 수준이 10년 후 우리나라의 국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본교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손지열 전 대법관은 “로스쿨의 탄생은 필연적이었으며 이는 사법연수원이 법률가 양성을 독점하는 관학시스템에서 대학이 주도하는 민간시스템으로의 획기적인 방향전환이었다”라고 회고하며 “문제는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새 제도를 어떻게 가꾸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있다”라고 말했다. 손 전 대법관은 “변호사 과잉공급의 우려가 있지만 우리사회가 장기적으로 많은 숫자의 법률가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로스쿨로 인해 법조사회는 더 강해지고 법치주의와 법률문화는 뿌리내릴 것이다. 그 흐름을 서울대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5동 모의법정에서 6시부터 열린 2부 행사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각 조별로 둘러앉아 저녁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2010 신입생 새로배움터

한편 2월 18~19일 양일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들을 위한 새로배움터(새터)가 진행되었다. 청평 풍림리조트에서 열린 올해 새터에는 신입생과 재학생 총 155명이 참석해 학생회 및 학회소개, 조별 소개, 게임 등의 행사를 가졌다. 이번 새터를 위해 총 20여 명의 학생들이 새터준비위원회를 꾸려 행사 진행을 준비하였다.

김건식 원장은 “여러분은 이제 법률가의 길로 들어섰으니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3년간 무엇보다 학업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여러분들은 법률가를 넘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기념강연

정의, 형평, 자유의 세계를 향한 항해



손지열 변호사 (전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오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 년전 제가 대법관 겸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로스쿨 제도의 탄생을 둘러싼 논의에 다소간 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일부분 책임도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말들이 많습디만, 그러나 사실 로스쿨의 탄생은 필연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종래 법조인 양성교육을 대법원이 맡아서 해 왔으나, 교육 전문 기관이 아닌 대법원에서 법조인 양성을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법률가 교육을 국가기관이 전담하는 이른바 관학 시스템이 타당한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판검사보다는 변호사나 기타 법률전문직이 대종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판검사 양성 위주의 커리큘럼이나 교육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다양한 학부를 전공한 인재들을 뽑아 좀 더 리버럴한 환경에서 법률가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예비 법조인에 대한 교육을 사법연수원이라는 단일 기관이 전담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쟁이 있는 곳에 발전이 있다는 절대 명제 앞에서 연수원에 의한 교육 독점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 끝에 대법원이 과감히 사법연

수원 제도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제 공은 대학으로 넘어왔습니다. 각 대학의 명운을 건 유치 경쟁이 있었습니다. 100% 만족스러운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엄청난 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로도 상당한 기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제 개인 의견으로는 기본적인 방향은 옳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 당국, 대학 당국, 교수와 학생들이 지혜를 모은다면 5년 내지 10년쯤 후에는 아주 성공적인 모델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로스쿨 학생의 정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로 인하여 혼란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걱정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 지역, 여러 대학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를 하다 보니, 각 학교 별 정원은 너무 적은 반면 전체로는 지나치게 많은 정원이 책정되는 기형적인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구상 단계에서 법조실무계 대표와 법학계 대표간에 사실상 합의했던 인원을 훌쩍 넘은 숫자입니다.

당분간, 적어도 처음 수년간은 법조인의 공급 과잉이 될 것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00 명, 3,000 명 한니까 현재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처럼 느껴 집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20년후, 30년후에 필요로 할 법률가의 숫자를 가늠해 본다면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가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법치주의의 기반은 확산될 것이고, '물 오브 로'의 원칙이 사회 구축구석에 뿌리박게 되지 않겠습니까?

법조계의 선배 중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도에 의한 법조교육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큼니다. 공공연히 로스쿨의 장래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만, 저는 로스쿨로 인하여 법조사회가 팔

목할만한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로운 기풍과 발랄함을 지닌 젊은 피들로 인해 법조사회는 더 강해지고 법률문화는 더 창달되며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건전한 뿌리를 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별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크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로스쿨으로 발전하여 우수한 법률가들을 배출해 달라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이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우리나라 전체 로스쿨의 장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법조사회, 좀더 거창하게 말한다면 이 나라 이 사회의 앞날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서울대학교 로스쿨은 다른 로스쿨들의 모범이 될 것이고, 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학교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전국의 로스쿨이 뒤를 따라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역사의 첫 페이지를 적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법학을 먼저 공부한 사람으로서, 법학이 어떤 학문이며 어떻게 공부하여야 하는가, 또 법조인으로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원론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 상당수는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지만, 더 많은 수가 법학 아닌 학문을 전공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였건 다른 학문을 전공하였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3년동안 법학전공자는 기왕에 한 법률 공부를 심화하는 한편으로 다른 동료로부터 법률 외의 많은 분야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법학전공자는 이미 공부한 분야의 토양 위에 법학의 나무를 세우고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종래의 법과대학이 법학 순혈주의이었다면, 로스쿨은 다학문 혼혈주의입니다. 새로운 개방화 시대에 이 혼혈주의 법학이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다이내믹한 힘을 펼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학은 흔히 생각하듯이 개념과 논리로 독자

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또 법률가는 그런 기계적인 일을 하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물론 법률가가 되기 위하여는 법적 개념과 법적 논리를 익혀야 하며 그것들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률가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법학의 목표는 한층 높은 곳에 있고, 법률가의 이상도 그러합니다. 법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은 정의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본질적인 원리로서 형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를 더하겠습니다. 법학은 정의와 형평과 자유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법률가는 이러한 법의 세계를 찾아나선 구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당장 공부하는 것은 헌법, 민법, 형법, 소송법 등입니다. 그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깨우치고 판례를 익혀야 합니다. 법학을 가르치는 각종 문헌의 그 어디에도 정의, 형평, 자유가 직접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해하는 선박이 목적지 항구의 등대를 지향하고 가듯이, 여러분의 법학은 언제나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에 대한 분명한 지향을 상실할 때 법학은 아주 고약한 학문으로 타락할지도 모릅니다. 정의를 잃어버린 법은 한 마디로 재앙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법률 조문이나 개개 판례를 공부하고 외우는 것보다도 법이나 제도의 밑바탕에 깔려 있고 때로는 법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원리를 깨우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흔히 법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이 조항은 이렇게 규정되었고 왜 이 판례는 이런 결론을 내렸는가 하는 비판적인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석서나 판례집에 앞서 기본 교과서를 항상 옆에 두고 법학의 기초부터 다져가야 합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법의 세계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수학이나 기계학의 방법론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론 법학의 기본골격은 철저하고 형식적인 논리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익히는 데에는 수학적 논리나 기계학적 엄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학의 논리 가운데에는 철학과 인간학의 피가 흘러야 하고, 법학의 형식성은 인문학이나 다른 학문체계로부터 계속하여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법학은 생명 없는 논리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이성과 감정, 애증과 갈등이 고스란히 녹아 있

는 인간세계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로스쿨은 지금까지의 법학교육에 비하여 이런 류의 생명 있는 법학을 꽃피우기에 한층 적합한 환경과 여건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로스쿨은 바로 법조인 양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곳에서의 3년 동안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품격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법조인은 개인적인 직업인이기에 앞서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공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가 법조인에게 평생의 자격을 주고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적 영달을 누리고 남들보다 풍족한 삶을 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공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판사나 검사 기타 공적 영역에서 근무하는 법조인은 물론이지만, 변호사나 그 밖에 사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법조인도 본질적으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이라는 의식을 망각하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인이기에 고도의 윤리성이 담보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학도로서 그리고 법률가로서 ‘법적 사고방법’ 즉 리갈 마인드(legal mind)를 체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학부에서 법학 아닌 학문을 전공한 분들에게 이 점을 간곡하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물을 대할 때, 그리고 어떤 문제에 마주칠 때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어떤 방법, 태도가 있습니다. 법률가는 법적으로 생각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법률가가 정치인처럼, 종교인처럼, 또는 자연과학자처럼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과목의 법학을 공부하고, 교수님들이나 선배 법조인들과 교류를 하고, 또 여러분들 사이에서 토론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체득되는 것입니다. 학부에서 전공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여러분들이 법률가로 되는 데에 훌륭한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학문의 방법론이나 사고방법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리갈 마인드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학 지식이 부족한 법률가는 배워서 보충하면 되지만, 리갈 마인드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법률가는 평생동안 본인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리갈 마인드는 균형감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법률가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지 기본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균형을 잃고 있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균형을 잡아 주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상태를 거울처럼 깨끗하게 간직하고 자신의 저울추를 항상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법률가의 빼놓을 수 없는 덕목입니다.

끝으로, 법률가에게 소신과 양심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소신과 양심이 없는 법률가라면 영혼이 없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소신은 고집과 다르고 양심은 독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률가의 소신은 정의를 향한 신념이어야 하고, 법률가의 양심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상식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률가는 자기의 소신이 늘 정의를 지향하도록, 그리고 자기의 양심이 항상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을 유지하도록, 자기를 훈련하고 가다듬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률가의 소신과 양심은 하루 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시행착오와 자기연마를 통하여 어렵게 어렵게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재판으로 칭송받는 재판입니다. 두 어머니가 한 아기를 놓고 한사코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 왕은 칼로 그 아기를 가르라는 말 한마디로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가려내었습니다. 법전도 없었습니다. 복잡한 절차도 없었습니다. 대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 그리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법학은 지혜의 학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식을 넘어 지혜에 이르러야 합니다. 지혜의 세계에 이르기 위하여는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 시간과 공간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법학이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무생물의 학문이 아니라 온갖 세상이 녹아 있고 인간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살아 숨쉬는 학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법률지식과 법논리를 가지고 유희하는 법기술자가 아니라 법의 지혜를 가지고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진정한 법률가가 되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행사

2010학년도 전기 법과대학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 전기 법과대학 학위수여식이 2월 26일 오전 11시 15동 모의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를 수여받은 학생은 박사 9명, 석사 30명, 학사 163명 등 총 202명이었으며, 김건식 원장은 졸업생에게 일일이 학위를 수여하고 악수를 건네며 졸업 축하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학부 수석졸업의 영예는 고유강(법학부 05학번) 군이 차지했으며, 김재남·홍성균(각 법학부 05학번) 군이 최우등상·우등상 수상자를 대표하여 상패와 기념품을 수여 받았다. 졸업생들은 교문 밖을 나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생활에 다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모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생이라는 긍지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봄을 재촉하는 포근한 날씨 속에 진행 된 이번 학위수여식은 캠퍼스 곳곳에서 학위수여자들이 가족과 동료, 선후배들에게 둘러싸여 그 동안의 땀과 성과에 대해 서로 격려와 축하를 주고 받았다.



2010학년도 전기 법과대학 학위수여식 1



2010학년도 전기 법과대학 학위수여식 2

곽윤직 교수 기념 세미나실

지난 2009년 12월 15일 법과대학 17동 106호에서는 곽윤직 교수 기념 세미나실 현판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윤진수 교수가 사회를 담당하였으며, 곽윤직 교수의 가족과 본교 교수들을 비롯하여 민사판례연구회 등 학계와 실무계에 걸쳐 수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 민법학계의 태두인 후임 곽윤직 교수는 1925년 충남 연기군에서 태어나, 1951년 본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8년부터 모교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륙법을 주로 강의한 곽윤직 교수는 나중에는 민법을 강의하면서 1963년부터 1971년까지 8년에 걸쳐 민법 강의 시리즈를 완간해 '한국 민법 최고의 교과서'의 저자로 명성을 떨쳤다. 곽 교수는 1991년에 정년퇴임하기까지 40여 년을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사판례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학계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으며, 현재는 본교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다.



곽윤직 교수 기념 세미나실

법학전문대학원 2학기 평가회

교수와 학생이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후 두번째 학기를 되돌아보는 2학기 평가회가 지난 2009년 12월 17일 본교 엔지니어링 하우스에서 열렸다.

송옥렬 학생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평가회는 각 테이블 별로 학생과 지도교수가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함께 하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각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학생과 교수가 단상에 나가 발언을 이어갔으며, 실질적으로 법학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미흡했던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기탄없이 이야기해달라는 송옥렬 학생부원장의 주문에 따라 학생들의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는 자리가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2학기 평가회

주요행사



2009년도 서울법대 교수 송년의 밤



81학번 발전기금 전달식



IP(지식재산) 미국 시애틀 연수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 개최

2009년도 서울법대 교수 송년의 밤

2009년 12월 29일 15동 6층 모의법정에서 2009년도 서울법대 교수 송년의 밤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만찬과 법대 행사 회고사진 감상을 전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1부에서는 정상조 교무부원장의 개회사와 김건식 원장의 인사에 이어 법학대학원 개원을 전후하여 학생부학장으로 재임했던 송석운 교수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이 있었다. 성악과 함께 어우러진 Sunrise Sunset 등 4곡의 하프연주 공연을 감상한 후, 최대권 교수의 건배 제의로 1부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이어서 2부 프로그램에서는 김건식, 황적인, 안경환, 박은정, 이동진 교수와 로스쿨 1기 임규선 학생이 로스쿨 개원 1주년 기념 케익을 커팅하고, 로스쿨 1기 학생 7명이 'Way back into Love'와 '좋아좋아' 두 곡을 노래했다. 특히 '좋아좋아'는 가사를 바꾸어 법학대학원 학생들이 방대한 판례와 학설을 공부하는 어려움과 학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교수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에는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본교 교수와 교수 배우자들의 3분 스피치가 이어졌으며, 김건식 원장의 인사와 선물 증정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81학번 발전기금 전달식

2010년 1월 21일 법대 81학번 졸업생들이 김건식 학장을 예방하고 발전기금 일억원을 기부하였다. 81학번 졸업생들은 서울대학교 법대가 우리나라를 뛰어 넘은 세계 일류 대학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탁의 뜻을 표명했고, 이에 우리 대학은 감사의 뜻과 보다 발전된 대학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IP (지식재산) 미국 시애틀 연수

본교 IP전공과정 신입생들과 IP관련 업무 종사자 그리고 법대 교수들은 2010년 1월 24일부터 30일까지(6박 7일) 미국 Washington주 Seattle소재 대학 및 다국적 기업, IP전문 로펌 등을 방문하였다.

본 연수는 올해 신설된 IP전공과정(법과대학 지식재산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의 선진 IP관련업무 실무경험을 체험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방문기관들은 다국적 기업인 Microsoft를 포함하여 IP전문기업 Intellectual Ventures 등이었다. Perkins Coie 등의 IP전문 로펌 방문을 통해서는 최신 IP이슈와 동향 등을 파악하고,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University의 로스쿨 방문을 통해서는 법률 클리닉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취득하였다.

방문기관 : Microsoft, Intellectual Ventures, Perkins Coie, KMOB (Knobbe Martens Olson & Bear), Seattle University School of Law,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외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 개최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을 맞아 2010년 2월 8일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주최로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센터장인 박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관련 법조, 실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관심 있는 관련분야 종사자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국산법학도서관 리모델링 완료

국산법학도서관을 전면 개·보수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2월 22일 완료되었다. 매점으로 사용되었던 1층 공간은 운동실로 탈바꿈했고, 2층 좌측에는 참고자료실·신착연속간행물실이, 우측에는 서울법대역사관이 들어서게 된다. 3층 좌측에는 연속간행물실이, 우측에는 열람실(84석, 사물함 82개)이 새로 생겼다.

한편 서암관 2층의 참고지정자료실이 국산법학도서관으로 옮겨가면서 기존의 공간은 개인학습을 위한 열람실(136석, 사물함 80개)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개인열람실의 좌석수는 298개에서 518개로 크게 늘어나 학습환경이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서울법대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가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법대장학재단이 2010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총 18명(로스쿨 12명, 법학부 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2월 22일 열린 장학금수여식에는 이상혁 재단이사장, 김정국 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은 “장학금을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 후배들에게 더 큰 사랑을 주는 선배가 되겠다”라며 장학금 수상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장학재단의 올해 1학기 장학금지급액은 총 62,536,000원이며, 지난해에는 총 114,000,000원의 장학기금을 모금한 바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동계 실무수습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이번 겨울방학에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위한 실무수습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기업금융 분야에서는 로펌 11곳과 기업 법무팀 2곳이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공익인권 분야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공기관 가운데서는 법원 등 5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동계 실무수습에 참여한 총 84명의 재학생은 약 2주의 기간 동안 전문변호사의 강의 수강 및 발표·토론, 의견서 작성과 리서치 등의 업무보조, 각종 재판 참관과 기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실무수습 참석자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개인별 실습평가서를 학교로 송부하며, 해당 학생은 실습보고서를 제출해 추후 더 나은 실무수습이 이뤄지는 데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업금융	로펌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동서,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지평지성, 법무법인 KCL,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한누리 (이상 가나다순)
	기업	GS칼텍스, SK텔레콤
공익인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공기관		헌법재판소(1차/2차), 중앙지방법원, 법원행정처, 국가인권위원회, 정부법무공단

<미국국제법학회 연차총회> 교수국제학술대회 참가

국제통상·거래법센터에서는 3월 24일에서 27일 사이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국국제법학회(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의 연차총회(annual meeting)에 참가를 원하는 학생과 교수들을 센터에서 지원하고 함께 다녀올 예정이다.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재학생들의 국제법무분야(국제경제법,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 국제투자법 등 포함)에 대한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해외동향 파악 및 선진학문 습득을 통한 연구력 향상과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산법학도서관 리모델링
(참고자료실 · 신착연속간행물실)



국산법학도서관 리모델링
(운동실)



서울법대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교수동정



호문혁 교수

호문혁 교수

2009년 4월부터 제주대에 머물면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세미나, 특강 등의 활동을 하며 2학기에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규과목인 '독일법'을 담당, 민사소송법에 대한 심화내용을 강의하고 그와 병행하여 수강생 전원에게 판례평석 발표를 시키는 블록세미나 등을 열었으며, 제주대 법정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였다.

또한, 2009년 6월부터는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서울대 법인화 법안에 대하여 단과대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론 수렴하며 올해 2월 10일에 국교련 대표들과 일본 호카이도 대학을 방문, 법인화의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010년 2월 4일에는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독일 뮌헨대 법대의 박사과정 학생과 조교들을 초청하여 개최한 세미나에 서울대-뮌헨대-리츠메이칸대 교류 담당자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앞으로의 교류 방안과 DAAD 동아시아 책임자와 단기초빙교수 지원 방안 논의를 하였다.



권오승 교수

권오승 교수

2009년 12월 31일 청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청조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으로서 직무에 정려(精勵)하여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윤진수 교수

윤진수 교수

2010년 1월 1일 한국민사법학회 수석부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또한 2월 4일에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장에 위촉되었다.



정종섭 교수

정종섭 교수

2009년 12월 한국고전번역원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평소 한학에 관심과 조예를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고전의 번역의 시스템과 운용 및 발전에 힘쓰고 있다.



신희택 교수

신희택 교수

2009년 12월 3일, 제 2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법조인의 양성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에 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법정위원회이다.



김화진 교수

김화진 교수

지난 2월 18일 미국 미시간대학교 로스쿨과 동대학 한국학연구소 공동주최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1997 - 2009>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양현아 교수

양현아 교수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양현아 교수는 2월 27일 서암홀에서 '저출산시대 낙태를 처벌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문제제기로 낙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라며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낙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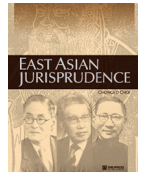
교수 신간소개

최종고 교수 _ East Asian Jurisprudence (SNU PRESS)

동아시아 법철학을 체계화한 세계 최초의 영문 저서이자 서양 법철학 일반도에서 동아시아법철학의 독자성과 특징을 이론화한 최종고 교수의 선구적 연구서이다.

이 책의 1부는 동아시아 법철학의 역사적 발전을 다루고 있으며, 고대부터 현대까지 100인이 넘는 법사상가 내지 법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을 압축하여 시대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2부는 동아시아 법철학의 이론을 법의 개념, 법과 정의의 형상, 법의 목적, 법과 도덕, 법과 실천이성, 법과 이데올로기, 법과 종교, 권리와 의무, 여성 법철학, 세계화와 법철학 등 10가지 테마별로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동아시아 법철학은 서양과는 달리 '이론이성'이 아닌 '실천이성'에 근거하여 법과 정의, 인권을 보다 휴머니즘적이고 조화롭게 추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East Asian Jurisprudence



헌법학(제10판)

성낙인 교수 _ 헌법학(제10판) (법문사)

성낙인 교수의 『헌법학』은 2000년에 초판을 출간한 이래 60년에 이르는 한국 헌법학의 성과를 반영한 헌법학 일반 이론서로, 올해도 어김없이 최신 판례와 연구성과들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판이 발행되었다. 올해 개정판은 2009년 12월 29일 결정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했고, 공직선거법과 국가배상법 등 대폭 개정된 법률의 내용까지도 수록했다. 또한 지난해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쌓게 된 풍부한 경륜도 책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김재형 교수 외 7명 _ 판례 소법전 (SNU PRESS)

김재형 교수 · 이용식 교수 · 박준 교수 · 박정훈 교수 · 이철수 교수 · 송석운 교수(이상 서울대 법대) · 박우동 변호사(전 대법관) 남형두(연세대 법대) 8명이 공동으로 발간한 판례 소법전이다. 일상생활에 긴요한 중요 법령을 수록하고 그 중에서 이론적 · 현실적으로 중요한 법률의 조항에 중요 판례를 붙여 발행된 이 책은 논리 중심의 법학적인 사고를 벗어나 이론과 실무의 조화가 중시되는 시대에 살아있는 법을 인식하는 중요한 창구가 될 예정이다.



판례 소법전



헌법과 정치제도

정종섭 교수 _ 헌법과 정치제도 (박영사)

이 책 『헌법과 정치제도』는 헌법의 개념에서부터 헌법의 기초를 이루는 것과 전통적으로 원래 의미의 헌법을 일컫는 국가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체, 헌법, 국가, 개인에 관한 사항과 이들의 연관을 밝히는 작업은 여러 방면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헌법학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연구를 통합하고 그 속에서 일정한 원리와 원칙 그리고 규범적 틀을 찾아내어 그 작동원리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작동원리가 밝혀지면 공동체, 헌법, 국가, 개인들이 가지는 각각의 좌표, 기능, 연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행위 규범도 밝혀지게 된다. 『헌법과 정치제도』는 이들에 대하여 전체적인 거시구도를 밝히고 동시에 그러한 것들이 상호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찾아내어 구체적인 국가작용이 이루어지는 법리를 밝혀 이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헌법과 기본권

_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이 책 『헌법과 기본권』은 공동체에 살고 있는 구성원인 국민이 향유하고 행사하는 헌법상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탐구이다. 이론으로서의 기본권론에서는 기본권의 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명할 수 있게 하는 인식의 틀과 이 틀을 관통하는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시에 해당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에서 생산된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논의하는 것이 그 실존성을 획득하는데 긴요하므로, 우리나라에 지난 20여년 동안 헌법재판이 활성화되어 많이 생산된 기본권에 관한 판례를 대거 동원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정종섭 교수는 『헌법학원론』을 기초로 더 심화된 논의를 전개한 위 두 저서를 출간함과 동시에 『헌법학원론』을 제 5 판으로 개정하였고, 『헌법소송법』 제 6 판도 새로 간행하였다. 헌법재판연구 2권도 근간 예정이다.



Правов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Членов Органов Управления: Анализ Мировой Практики

김화진 교수 _ Правов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Членов Органов Управления: Анализ Мировой Практики (Legal Regulation of the Liability of Members of Management Organs :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Practice) (Moscow : Alpinabook)

김화진 교수를 비롯해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Bernard Black 교수와 영국 케임브리지 법대 Brian Cheffins 교수 등 7인이 공동으로 발간한 국제비교법연구서이다. 이 책은 상법상 이사와 임원,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규율이 영미법계 국가들(미국, 캐나다, 영국)과 대륙법계 국가들(프랑스, 독일, 한국)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주제로 삼고 있다. 러시아 자본시장발전센터의 의뢰를 받아 2006년에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개정 작업을 거쳐 2009년에 러시아어로 출간되었다.



도시와 건축 (법학자의 눈으로 본)

김중보 교수 _ 도시와 건축(법학자의 눈으로 본) (피데스)

『도시와 건축』은 도시와 건축분야의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분야에서 문제되고 있는 특정한 법적 쟁점들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학을 기초로 도시나 건축에 접근해본 사람은 많은 책과 자료들이 법률 또는 제도와 무관하게 작성되어 많은 아쉬움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건설 분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 건축에 관련한 법률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과정

방송통신법 · 정책과정 제 1기 과정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의 일환으로 방송통신법정책과정 제1기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총 17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방송법, 통신법, 전파법, IPTV법, 정보통신망규제, 개인정보보호, 독점규제법 등 방송통신관련 법분야의 주요 주제들을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게 된다. (추혜림, 880-5056, celpu@snu.ac.kr)

강의일정보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법대학장, 주임교수	(2) 재정제도의 쟁점	이희정 교수(고려대)
2010년도 방송통신정책 운용방향	이경자 부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3) 시청명령제도의 쟁점	김태호 연구원(헌법재판소)
방송통신법의 기본원리		(4) 과징금제도의 쟁점	홍대식 교수(서강대)
(1) 방송통신시장에 있어서 규제와 경쟁	이원우 교수(서울대)	방송의 공공성	
(2) 방송통신시장규제와 경쟁상황평가	김정현 교수(고려대)	(1) 공영방송의 의의와 발전방향	황 근 교수(선문대)
방송통신시장에서 진입규제와 요금규제		(2) 방송의 공공성과 구조규제 - 소유 및 경영규제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1) 융합환경 하에서 방송통신사업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박동욱 박사(KISDI)	프로그램 액세스와 광고시장 규제	
(2) 방송통신 이용요금 규제의 쟁점	이상규 교수(중앙대)	(1) 방송통신법상 프로그램 접근권 규제	이상우 교수(연세대)
정보통신망 접근규제		(2) 방송광고시장 규제	김민기 교수(숭실대)
(1) 상호접속규제의 이론과 쟁점	김상택 교수(이화여대)	방송콘텐츠 규제	
(2) 설비제공/재판매규제와 망중립성	성낙일 교수(서울시립대)	(1) 방송법상 표현의 자유와 한계	성낙인 교수(서울대)
방송통신시장에서 독점규제의 쟁점 (1)		(2) 포털사업자의 책임범위	황성기 교수(한양대)
(1) 공정거래법과 방송통신산업	권오승 교수(서울대)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2) 방송통신시장에서 기업결합규제	이봉의 교수(서울대)	(1) 방송통신법상 이용자보호	한기정 교수(서울대)
방송통신시장에서 독점규제의 쟁점 (2)		(2) 보편적 서비스 규제	박종수 교수(고려대)
(1) 방송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홍명수 교수(명지대)	지적재산권과 정보보호	
(2) 방송통신시장에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이호영 교수(한양대)	(1) 방송통신법과 지적재산	정상조 교수(서울대)
방송통신법상 공정경쟁규제		(2) 방송통신법상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쟁점	경 건 교수(서울시립대)
(1) 방송시장의 특성과 공정경쟁규제	윤석민 교수(서울대)	유럽 방송통신규제기관 및 경쟁규제기	
(2) 통신시장의 특성과 공정경쟁규제	김희수 박사(KISDI)	방송통신법 전문가들과 워크숍 및 방송통신법 규제기관 방문	
전파관리제도		중합토론회	
(1) 주파수이용권의 성질과 효율적 전파관리제도	송시강 교수(홍익대)	(1) 방송통신산업의 미래와 방송통신정책의 방향	
(2) 주파수경매제의 쟁점	이상승 교수(서울대)	(2) 사례발표 및 평가	
방송통신법 집행절차의 쟁점		수료식	법대학장, 주임교수
(1) 제재처분을 위한 조사 및 심의절차의 쟁점	조성국 교수(중앙대)		

공개강좌

NGO와 법의 지배

2009년 12월 2일 오후 7시 17동 서암홀에서 공익인권법센터 공개강좌인 제3기 'NGO와 법의 지배' 수료식이 있었다. 이번 강좌는 9월 2일에 시작하여 14주간 진행되었으며, 25명의 NGO 활동가와 정부기관 유관공무원들이 수강하였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현숙, 880-6862, richter@snu.ac.kr)



NGO와 법의 지배 제 3기

구정혜 대한YWCA연합회	변금선 참여연대	이진영 참여연대
김동경 서울YMCA	양세진 (사)두얼스	이향심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김민구 (사)두얼스	위선주 (사)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조영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범석 (사)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이은심 한국성폭력상담소	류종하 법무부
김성장 경제대책시민연대	이정자 여성정치포럼	김성문 경찰청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이지은 참여연대	



최고지도자 과정

최고지도자 과정 제 11기 수료식

2월 17일 수요일 저녁 6시, 법과대학 15동 6층 모의법정실에서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제11기 수료식이 거행되었다. 제 11기 과정에는 총 46명이 수료하였으며, 수료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경진, 880-9160, snualp@snu.ac.kr)

강대진	유한회사 만경관	대표이사	양준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강승태	신한BNP Paribas자산운용(주)	부사장	양준호	호정물산(주)	회장
경재용	동문건설(주)	회장	윤병무	(주)비엠펙스	대표이사
고건호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전문관 (차장검사)	윤선우	(주)다빈치 브릿지 채널	대표이사
권혁중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윤용권	KB금융지주	부장
김세연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철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용원	법무법인 한별	대표 변호사	이상표	삼성전기	상무
김원택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장	이상현	아라코 주식회사	상무이사 (인사노무)
김혜경	(주)브리짓 홀딩스	대표이사	이승립	국제레이온스협회 364-G지구(제주) / 한마음영농조합	총재 / 대표이사
김 호	(주)대한토건	부사장	이영남	이지디지텔	사장
김호진	대우증권(주)	전무이사	이용우	(주)판교 / (사)전국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	대표이사 / 회장
류시현	방송인	-	이진영	(유)삼일회계법인	부대표
마해웅	(주)마골프씨앤디	대표이사	임영덕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제 2담당관
문대홍	통일부	법률전문관 (부장검사)	임인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민익홍	(주)홍림기업	대표이사	장명희	디자인 Terra	대표이사
박동문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정재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창수	법무부 (사법연수원)	검사장 (부원장)	정엽진	(주)대교CSA / (주)대교문고	대표이사
백정호	(주)동성홀딩스	회장	조영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검사장)
설정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 국회의원
송정규	한국도선사협회	회장	최상덕	(주)뉴로테크파마	대표이사
송종률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회장	최성우	(주)두산 지주부문 인사기획	전무
신창호	(주)유플레이	회장	허인구	SBS스포츠/골프채널	대표이사
안병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홍순민	현대 전략기획본부	상무이사

최고지도자 과정 제 12기

3월 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2회씩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최고지도자과정은 정규강의 뿐만 아니라, 야외특강과 조찬특강 및 해외연수로 다채롭게 기획되어 있으며, 강의 내용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게 된다.

입학식 & 오리엔테이션 및 만찬		기업범죄와 법	이상원 서울대 법대 교수
법학, 경제학, 심리학의 만남	고학수 서울대 법대 교수	미술품 컬렉션의 이해와 오해	이승현 유진데이터 대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길	권오승 서울대 법대 교수	규제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원우 서울대 법대 교수
중년의 건강	권오중 레알 권오중 여성외과 원장	법조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상영 (전) 검찰총장
대한민국 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기후변화와 한국의 대응	조홍식 서울대 법대 교수
서양미술의 이해	김영나 서울대 인문대 고고미술학과 교수	문명과 바다 : 해양에서 형성된 근대 세계	주경철 서울대 인문대 서양사학과 교수
상속으로 풀어보는 법의 세계	남호순 서울대 법대 교수	기업경영과 세무조사	최선집 Kim&Chang 법률사무소
헌법재판의 이해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행복한 사람들의 프레임	최인철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교수
클래식 음악의 이해	민은기 서울대 음대 교수	법과 정의의 상징	최종고 서울대 법대 교수
법이란 무엇인가?	박정훈 서울대 법대 교수	스포츠 공학	최해천 서울대 공대 교수
헌법개정의 이해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사법부의 독립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경찰-경찰의 과학적 신비	소광섭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강연〉 포도주의 맛과 멋	방진식 외인문화연구소 대표
21세기 지도자의 리더십	송 복 연세대 명예교수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강연〉 인생과 음악	조영남 방송인, 화가, 작가, 가수
The Perils of Success	송호근 서울대 사회대 교수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강연〉 국악과의 만남	황준원 서울대 국악과 교수
국제 M&A 협상과 사례	신희택 서울대 국제통상거래법 센터장	〈조찬특강〉 명사와의 만남	-
한국문학 속의 법률가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야외특강〉 1박 2일	세미나를 통한 우정과 침묵도모
인간 본성과 경영	안태식 서울대 경영대 학장	〈해외연수〉 2박 3일	해외문화탐방
마음으로 하는 골프	원형중 이화여대 체육학과 교수	〈졸업여행〉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졸업여행
문화유산을 보는 눈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발전기금 출연 현황

(2009.12.01 - 2010.02.28 / 이정숙, 880-6866, interlaw@snu.ac.kr)

단위 : 만원

법과대학											
납기일	이름	금액	기금용도	납기일	이름	금액	기금용도	납기일	이름	금액	기금용도
2009.12/01	전종익	100	시설물	2009.12/29	최지석	1	학 술	납입액 기간 합계 82,391 (09.12.01~10.02.28)			
2009.12/07	강용현	200	시설물	2009.12/29	이우영	200	시설물				
2009.12/08	김재형	100	시설물	2009.12/31	허중수	5	위 임				
2009.12/10	노영보	100	시설물	2009.12/31	지로미확인	5	위 임				
2009.12/11	장윤혁	1	도 서	2009.12/31	손경식	5,000	장 학	법학연구소 2009.12/11 박 준 1,000 금융법센터 지원 2009.12/11 박 준 1,000 국제통상거래법 센터 지원 2009.12/16 한기정 800 금융법센터 지원 2009.02/24 박 준 1,000 금융법센터 지원			
2009.02/04	김용현	100	시설물	2010.01/05	차재세	1	학 술				
2009.12/14	정종섭	100	시설물	2010.01/07	김동건	1,000	시설물				
2009.12/15	양창수	300	시설물	2010.01/12	장윤혁	1	도 서				
2009.12/15	정현수	20	시설물	2010.01/13	송상현	30,000	시설물	납입액 기간 합계 3,800 (09.12.01~10.02.28)			
2009.12/15	노승행	300	시설물	2010.01/22	법대39회동문일동	10,000	위 임				
2009.12/17	한자영	6,000	학 술	2010.01/25	송영식	1,000	시설물				
2009.12/17	곽성현	2,000	학 술	2010.01/26	전일호	1	위 임				
2009.12/18	곽성희	2,000	학 술	2010.01/26	최지석	1	학 술	Vol.17 정의의 종 기사에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거나,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아, 880-6866, ksa01@snu.ac.kr)			
2009.12/23	법대20회동문일동	3,000	시설물	2010.02/01	차재세	1	학 술				
2009.12/28	송상현	10,000	시설물	2010.02/11	장윤혁	1	도 서				
2009.12/28	이호원	100	시설물	2010.02/24	박 준	500	시설물				
2009.12/28	이대경	50	시설물	2010.02/25	법무법인 광장	10,000	시설물				
2009.12/29	법무법인정동국제	200	시설물	2010.02/26	전일호	1	위 임				
2009.12/29	전일호	1	위 임	2010.02/26	최지석	1	학 술				

법학발전재단 출연 현황

(2009.12.01 - 2010.02.28 / 이은숙, 880-7534, es1222@snu.ac.kr)

단위 : 만원

납기일	이름	금액	기금용도	납기일	이름	금액	기금용도
2009.12/07	윤태석	200	위 임	2010.01/28	익 명	500	위 임
2009.12/29	법무법인 태평양	9,000	법학발전	납입액 기간 합계		9,700	

법과대학 및 센터별 일정

기관명	일시	일정
법과대학	09.12/17	로스쿨 평가회
	12/29	법과대학 송년의 밤
	10.2/18~ 2/19	2010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0.2/26	전기법과대학 학위수여식
	10.2/26	2010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금융법센터	10.2/8	학술대회 (주제 :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법학연구소	09.12/2	법과문화포럼 (주제 : 리더십과 심신상관 건강법의 관계 /고상근(서울대 공대))
	09.12/5	학술대회 (주제 : 젠더관점에서 본 이혼의 현실과 법리)
경쟁법센터	09.12/4	창립1주년 기념 제6차 정책세미나 (주제 :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남용규제)
	10.2/18	2010년도 제1차 정책세미나 (주제 : 공정거래법의 집행절차)
공익인권법센터	09.12/2	NGO와 법의 지배 강화 수료식
기술과법센터	10.2/1	LAW & Technology 제6권 1호 발간